

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 ‘모바일 앱’ 개발한다

360개 맞춤형 복지정책 안내·언제든 온라인 신청 가능 8개 홈페이지 통합 로그인 기능...시민 정보 접근성 ↑

광양시가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총 총하고 두텁게 보장하는 특별한 복지체계인 ‘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을 완성하기 위해 ‘모바일 앱(App) 개발’에 착수했다.

24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인화 광양시장, 관계 부서장, 용역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시 모바일 앱(App) 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바일 앱 개발은 시민들이 각종 행정서비스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바일 앱의 주요 기능은 ▲개인별

맞춤형 홍보(PUSH 알림)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안내 및 신청 ▲실시간 민원 상담 채팅 ▲모바일 광양시민카드 발급(광양시민) ▲디지털 광양시민증 발급(출향인, 타 지역 주민) ▲시설·강좌 통합예약 ▲시정참여 포인트 지급 ▲각종 생활불편 신고 ▲주요 생활정보 안내 ▲ 설문조사 ▲음·면·동 소식 등이 다.

특히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안내 및 신청’은 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을 구성하는 360개 복지정책을 사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앱의 핵심 기능이다.

또한 실시간 민원 상담 채팅은 일반 행정, 생활민원, 복지, 세무, 교통 등 민



광양시가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인화(왼쪽) 광양시장, 관계 부서장, 용역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시 모바일 앱(App) 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원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상담원과 대면한다. 광양시는 모바일 앱에 로그인하면 ▲광양시 홈페이지 ▲구인구직플랫폼 ‘굿

잡광양’ ▲도서관 홈페이지 ▲청년꿈터 홈페이지 등 시에서 운영하는 8개 홈페이지를 별도의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로그인(SSO) 기능을 마련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정인화 시장은 “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광양형 신규정책 개발과 함께 시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서에서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바일 앱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양시는 모바일 앱 개발 완료 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 2월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광양=양홍렬 기자

여수 시민단체 “여순사건 조사 기한 연장” 촉구

내달 5일까지 진상규명 사실상 ‘불가능’...심의 완료 9.4% 불과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여순사건 진상 규명 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24일 여수에 따르면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민추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유족회, 안보·보훈단체,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여수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 20

22년 10월7일 희생자 45명, 유족 214명을 처음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사태 7천546건 중 최종 심의 완료된 건은 9.4%(708건)에 불과하며,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기한인 10월5일까지 심사를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 회의와 두 차례의 실무위원회를 거쳐 사실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여수시의회, 여수사

건 여수유족회, 여순사건 순직경찰 유족회 등 33개 단체가 참여했다.

신지역 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에 대한 사회의 염원을 이번 성명서 발표로 이끌어냈다”며 “하루빨리 사건의 진상이 올바르게 규명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조속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민추진위원회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을 포함해 순직 군경 유족, 시의회, 안보·보훈단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여수=김진선 기자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23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 진상 규명 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여수시 제공>

장흥군, 집중호우 수해복구 ‘총력’

공무원 300여명·자원봉사자 수해복구 현장 나서

장흥군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택과 주요 시설을 복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김성(사진)장흥군수를 포함한 공무원 300여명과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수해복구 현장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군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인 주말 이후부터 주요 도로와 시설을 긴급 복구에 돌입했다. 지원 인력은 부서 별로 지역을 배정해 침수 주택과 생활환경을 정리하는 데 투입됐으며, 침수 주택 정소는 피해가 크고 복구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가정과 고령의 지역민을 우

선 선정했다. 지난 22일 기준 모두 360건, 22억4천9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택 피해가 106건, 농산피해가 19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도로시설 피해도 40건으로 적지 않았다. 피해 규모는 지역별 상세한 추가 조사를 통해 일정 부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 군수는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투입해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이번 폭우로 나타난 재해 취약지역과 시설을 철저히 보강해 보다 안전한 장흥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장흥=김문태 기자

장성, 버벌구 완전 방제 ‘박차’ 김한중 군수 “행정력 총동원”

장성군은 24일 “지난 23일 김한중 장성군수가 지역 내 버벌구 피해 농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버벌구 피해가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버벌구는 노린재목 해충으로 벼대 아랫부분 즙을 빨아먹어 쌀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고온다습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에서 주로 발생하며 전남의 경우, 오랫동안 이어진 폭염 탓에 총 제재 면적의 13% 가량 버벌구 피해가 확인된 상황이다.

장성군의 피해 규모는 275ha 내외로, 이 가운데 집중적인 피해가 조사된 농가는 북이면 등 40ha 규모다.

장성군은 예비비를 확보해 총 3천 270ha 규모로 살포할 수 있는 분량의 긴급방제 약제를 지원했으며, 또 ‘버벌구 중점 긴급방제 기간’을 운영해 농가들이 이달 27일까지 방제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한중 군수는 “버벌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기술 지원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완전 방제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담양군, 내달부터 농어촌버스 기본 요금 인상

6.7% ↑ 권장 인상을 절반 수준...군민 부담 최소화

담양군은 24일 “오는 10월1일부터 농어촌버스 일반인 요금을 100~12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4년여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군이 현재 적용 중인 요금은 2020년 9월1일부터 유지되고 있다.

전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도내 농어촌버스 요금 인상을 의결하고 8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지만 담양군은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운수업체인 (유)동광담양고속과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전남도 소비자 물가 인상 최소화 범위인 13.3% 인상률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률을 결정했다.

변경된 담양군 농어촌버스 요금은 관내는 ▲일반인 1천600원(100원 인상) ▲중·고등학생 1천200원(80원 인상) ▲초등학생은 800원(50원 인상)으로 6.7% 인상됐다.

그러나 군 정책사업인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일반인 1천원, 청소년 100원 버스 요금과 광주 시내버스 광역 환승 할인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관외는 1천800원에서 1천920원으로 인상돼 10km 이내 기본요금에 적용되고, 10km 초과 시(군계 외) 현행 131.82원/km에서 138.62원/km로, 고속도로 구간(13.5km)은 74.31원/km에서 78.05원/km로 6.95% 인상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농어촌버스 요금 조정이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와 처우개선을 이어서 국민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곡성물, 매주 수요일 8개 상품 50% 할인

오늘부터 12월까지...‘배송비 무료 이벤트’도

곡성군은 24일 “군 온라인 쇼핑몰 ‘곡성물’에서 25일부터 12월18일까지(10월9일 제외) 총 12주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50% 특가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까지 6시간 동안 고객들은 곡성물 입점 상품에서 25일부터 12월18일까지(10월9일 제외) 총 12주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50% 특가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첫 날인 25일에는 국내산 유류

상추와 무항생제 자미유정란, 천연발효 통밀빵, 산삼배양근, 사인머스켓, 무농약 호두, 무농약 토란가루, 간도란을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인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물의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을 홍보하고자 수요 특기 기획전을 준비했다”며 “행사 기간 동안 배송비 무료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고흥군, ‘2025년 국가 유산 야행사업’ 선정

홍양현읍성 가치 재조명...야간 관광 프로그램 운영

고흥군은 24일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2025년 국가 유산 활용사업’에 ‘홍양현읍성 1441’ 프로젝트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홍양현읍성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야간 관광 프로그램 가치를 재조명하고,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야간에도 국가 유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행사업은 존심당 역사문화공원을 중심으로 전개될 예정이며, 과거 홍양현관이었던 존심당과 함께 홍양현읍성, 옥하리 흥교, 고흥향교, 옥하리 고평, 남취

루 등 전남도 지정 국가 유산을 주요 무대로 다양한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천경사 생가, 고흥아트센터, 전통시장 등 지역의 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사업 선정은 현재 고흥문화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국가 유산 미디어아트에 이어 군이 연이은 국가 유산 활용사업의 또 다른 성과”라며 “옛 군청 이전 후 다소 침체한 지역 분위기를 이번 야행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련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최복환 기자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홍양현읍성, 홍양현 영주아문루 남취루 활용 모습, 고흥향교 은행나무, 고흥향교 명륜당 전경. <고흥군 제공>